

보도시점

2026. 6. 18.(목) 10:00

배포

2026. 6. 18.(목) 09:00

국가AI전략위,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논의' 세미나 개최

- 미토스 등 첨단AI發 상시적 해킹 위협 고조.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을 넘어 국내 제도화 논의 선제적 착수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6월 18일(목) 오전 10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연쇄 대형 보안사고를 계기로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으로 관련 시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주관] 과기정통부(민간)/국정원(공공), [참가기관] 총 1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화이트 해커 참가 자격] 대한민국 국적 보유 19세 이상, [추진 일정] '26.6월 ~ '26년 연말

최근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하는 가상자산에서조차 무제한 위조가 가능한 취약점이 첨단AI에 의해 발견(가상자산 '지캐시', 6.14 블룸버그통신 보도)되는 등 AI發 보안위협이 가파르게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 보안특위는 시범사업 이후 속도감 있는 제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배경훈 부위원장이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국정원·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 삼성생명·LG유플러스·엔씨소프트(NC)·잉카인터넷·토스페이먼츠 등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5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 추진되었다.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바람직한 국내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태승 연구위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김진수 회장), 사이버 보안 기업 (주)로그프레소(구동연 전무), 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위원회 사회분과 분과위원)

2부에서는 1부 발제자와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및 제도화 연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패널*, 현장 참석 청중들이 함께 제도화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 사회분과 김경훈 분과위원(카카오 AI Safety 이사), 법무법인 린 유창하 미국 변호사

토론에서는 △ 미국과 EU 제도를 고려한 우리나라 제도화 추진 방향, △ 제도도입으로 취약점 제보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패치 등 전담인력, 중소기업 역량 등 균형 확보 방안, △ 취약점 노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는 기업/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 △ 화이트해커들이 안심하고 취약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 범위와 개정 방식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은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는 AI 시대 실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보안 인프라”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첨단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하면서 사이버 위협의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실증 단계로 논의를 전환하여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배경훈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초연결 AI시대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의 대응 속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국가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유경태 (02-2224-4131)
		담당자	사무관	강영근 (02-2224-413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식브리핑

